

합류시대의 결합된 네 가지 형태에 대한 경험.

오늘 밥다다는 자녀들 모두의 결합된 모습을 보고 있다. 자녀인 너희 모두 너희들의 결합된 형태를 잘 아느냐? 먼저, 고귀한 영혼인 너희들은 마지막의 낡은 몸과 결합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너희를 극히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런 몸이다. 고귀한 영혼인 너희 모두 지금 그 몸의 지원을 받아 고귀한 과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 그 몸들을 통해서 밥다다와의 만남도 경험하고 있다. 각자 가진 것은 낡은 몸이지만, 고귀한 영혼인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알로키한 경험을 한다는 데 그 마지막 몸의 위대함이 있다. 그러므로 영혼과 몸이 결합되어 있다. 그것이 낡은 몸이라는 의식은 전혀 없이 너희는 그 주인이 되어 그것이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영혼을 의식하고 카르마 요기가 되어서 신체기관들이 일할 수 있게 해라.

두 번째로, 너희들의 알로키한 모습과 형상이 없는 분의 형태가 결합된 형태가 있다. 사이클 전체를 통틀어도 너희가 이 결합된 형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이다. 이것은 너희들과 아버지의 결합된 형태에 대한 경험이다. 항상 전능한 권위자 마스터로 머물러 있음으로써, 항상 승리함으로써, 항상 모든 이를 위한 장애의 파괴자가 됨으로써, 항상 좋은 염원과 고귀한 느낌, 고귀한 말, 고귀한 드리시티, 고귀한 행위를 가짐으로써 너희는 남들에게 너희가 세계의 시혜자라는 경험을 준다. 이것은 너희가 1초에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화신이 되게 만든다. 그것은 너희를 공여자로 만들고 또 너희 스스로와 남들에게 축복을 주는 공여자 마스터가 되게 만든다. 그냥 끊임없이 결합된 이 형태에 안정해서 머물러라, 그러면 기억과 봉사에서 너희는 쉽게 성공의 화신이 될 것이다. 방법은 그저 명목상으로 뿐이지만 성공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 이때에는 방법을 따르는 데 시간이 많이 든다. 너희의 잠재능력에 따라 성공이 경험된다. 그러나 알로키하고 강력한 결합된 이 형태로 너희가 더 많이 지낼수록 너희는 방법을 통해서 성공을 더 많이 경험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하는 노력에 비해 더 큰 성취를 경험할 것이다. 성공의 화신이 된다는 의미는 모든 과제에서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의 실제적인 경험이 되게 해라.

세 번째 결합된 형태는 “브라민인 나는 천사다”라는 브라민 형태와 최종 카르마티트 천사의 형태다. 이 결합된 형태에 대한 경험은 너희가 이 세계에 비전을 허락하는 형상이 되게 만들 것이다. 걷고 움직여 돌아다닐 때와 너희가 육신을 통해서 물질세계에서 각자의 배역을 연기하면서 너희가 브라민이고 천사임을 의식함으로써 너희는 서툰 리전의 천사인데 세계 봉사를 위해 물질세계의 몸 안에 들어온 아버지 브라마의 동반자로 제 스스로를 경험할 것이다. 너희는 육신의 감각을 초월해서 천사의 형태를 채택한 이로서 너희 스스로를 경험할 것이다. 이 아비약트의 느낌들, 즉 천사인 느낌은 자동적으로 너희를 아비약트하게 만들 것이다, 즉 그것들은 천박한 말과 행동, 천박한 성질, 천박한 감정들의 산스카르를 쉽게 변화시킬 것이다. 감정들이 변하면 모든 것이 다 변한다. 너희들의 모습 안에 항상 그러한 아비약트의 느낌이 있게 해라. 너희가 천사인 브라민이라는 의식을 가져라. 지금 그 의식이 실제적인 형태를 취하게 해라. 형태는 변함없이 쉽고도 자동적으로 지속된다. 그것을 실제 형태로 옮긴다는 것은 너희가 항상 아비약트 천사라는 뜻이다. 가끔은 잊고 때때로 기억하는 의식 속에 머무는 것이 첫째 단계다. 형태가 되는 것은 고귀한 단계다.

네 번째는 미래에 팔을 넷 가진 형상, 즉 락쉬미와 나라얀의 결합된 모습인데, 왜냐하면 지금 이때에 영혼인 너희들은 락쉬미와 나라얀처럼 되는 산스카르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때로는 락쉬미가 되고 때로는 나라얀이 될 것이다. 미래 보상으로서의 결합된 형태가 그만큼 뚜렷이 되게 해라. 오늘의 천사가 내일의 신인이다. 한순간 천사였다가 바로 다음 순간 신인이 된다. 너희들의 왕국과 왕족의 모습이 곧 올 것이다. 그것들은 거의 준비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너희의 생각이 분명하고 강력해지게 해라, 왜냐하면 너희들의 뚜렷하고 강력한 생각이 나올 때면 너희의 왕국이 가까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생각이 나온 뒤에 그것들은 새 세계를 창조할 것이다, 즉 그 생각들이 이 세계에 그 왕국을 가져올 것이다. 너희의 생각들이 마음속에 있을 때는 새 세계가 밖으로 나올 수 없다. 브라마의 생각은 브라민들의 생각과 함께 새로운 세계를 이 지구에 드러낼 것이다.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고 한 약속 때문에 아버지 브라마는 새로운 세계에서 너희 브라민 자녀들과 그의 첫 번째 배역을 연기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만일 브라마 혼자만 크리슈나가 된다면 그가 뭘 하겠느냐? 그는 함께 놀고 같이 공부할 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버지 브라마가 브라민들에게 이르는데, 아비약트 형태를 채택한 아버지인 나와 대등해져라, 즉 아비약트 형태를 가진 자이며 천사의 단계를 가진 자들이 되어라. 천사들은 신인이 될 것이다. 이해하느냐? 오직 이 모든 결합된 형태로 안정해 머뭇머뭇만 너희가 완전하게 완성될 것이다. 너희는 아버지와 대등해져서 너희의 행위에서 쉽게 성공을 경험할 것이다.

2중의 외국인들은 밥다다와 대화를 가지고 만남을 축하하려는 깊은 소망을 갖고 있다. 너희들 모두 오늘 바바를 만나야겠다는 것을 느낀다. 하지만 이 물질세계에서는 모든 것을 다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태양, 달, 별들 아래 있다. 이 모든 것 너머의 세계로 와라, 그러면 너희는 거기서 영원히 앉아있을 수 있다. 밥다다는 모든 자녀 각자의 특질도 역시 사랑한다. 너희들 중의 일부는 어떤 이들은 더 많이 사랑 받고 너희는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마하라티들은 각자의 특질로 인해 사랑 받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너희들 각자 고유한 방식대로 마하라티다. 너희는 위대한 영혼들이므로 마하라티들이다. 이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일부 어떤 이들은 사랑으로 도구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모두 과제를 위해 각자의 장소를 받았다. 만일 누구든지 다디가 된다면 일이 되겠느냐? 누군가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사실 너희는 각자의 방식으로 모두 다디들이다. 누구든 디디 또는 다디라고 불린다. 그럼에도 너희는 모두 함께 어떤 이를 도구로 만들었다. 너희 모두가 그녀를 도구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아버지만이 그녀를 도구로 만들었느냐? 활동하기 위해서, 또한 각자의 과제에 따라서 누군가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은 너희 모두가 마하라티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다. 너희들도 역시 마하라티다. 너희는 마하비르들이다. 마야에게 도전하는 자들이 마하라티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밥다다에게는 7일 코스를 배우는 자녀들도, 단지 일주일 과정을 마치고 나서도 자기들의 삶을 이처럼 고귀하게 만들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들마저도 마하라티들이다. 도전장을 내던졌으니 그들은 마하라티들이며 마하비르들이다. 밥다다는 한결같이 자녀인 너희들 모두 구호를 실천으로 옮기도록 일깨운다. 하나는 너희가 원래의 단계를 지속하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남들을 대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본래의 단계에서 너희 모두 중요해서 너희들 중 어느 누구도 사소하지 않다. 사업 활동에서는 누군가 도구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사업과 활동에서 끊임없이 성공을 지속하기 위한 구호는, "존중해주고 존중받아라"라는 것이다. 남들을 존중하는 것이 곧 존중받는 길이다. 주는 것 안에 받는 것이 들어 있다. 존중해주면 너희는 존중받게 될 것이다. 존중받는 길은 존중해주는 것이다. 너희가 존중할 때는 존중받지 않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피상적으로 주지 말고, 너희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그것을 줘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존중해주는 자들은 진심으로 존중받는다. 만일 너희가 겉으로만 존중한다면 피상적인 존경을 받을 것이다. 항상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주고 진심으로 받아라. 이 구호와 함께 너희는 항상 장애와 낭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태평하게 지낼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걱정이 없을 것이다.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은 이미 성취되었다. 이미 보장되었다. 너희는 태평한 상태로 지낼 테고 그렇게 고귀한 영혼들에게는 현재와 미래의 고귀한 보상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 아무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 다른 이의 자리는 정해져 있으므로 다른 누구도 대신 그것을 차지할 수 없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태평하다. 이것을 아버지와 대등하며 아버지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고 부른다. 이해하느냐?

바바는 2종의 외국인 자녀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가졌으니, 피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난 사랑이다. 밥다다가 이미 너희들에게 얘기해주었듯이 옛날 노래 중에, "나는 세상의 높은 장벽들을 넘어 왔다네"라는 노래가 있다. 이것은 2종의 외국인들에 대한 노래다. 너희들은 대양, 종교, 나라, 언어라는 높은 장벽들을 모두 넘어서 아버지에게 속했다. 이런 이유로 너희는 아버지에게서 사랑받는다. 바라트의 사람들은 어쨌든 신인들을 숭배하는 숭배자들이었고 높은 장벽을 넘지는 않았다. 그러나 2종의 외국인인 너희들은 높은 장벽들을 참으로 쉽게 넘었다. 그래서 밥다다는 마음에서 우러나 자녀인 너희들의 이 특질을 노래로 부른다. 이해하느냐? 바바는 단지 너희를 기쁘게 하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일부 어떤 자녀들은 밥다다가 모든 이를 기쁘게 한다고 장난스럽게 얘기한다. 하지만 바바는 의미 있게 각자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밥다다가 그저 명목상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지 너희 스스로 자문해봐라. 너희들은 높은 장벽들을 넘어 여기에 오지 않았느냐? 노력을 무척 많이 해서 너희는 표를 구했다. 여기를 떠나자마자 너희는 이듬해의 표를 사기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한다. 밥다다는 너희 자녀들의 사랑을 보고, 너희가 여기에 오려고 그토록 지극한 사랑으로 택하는 방법들을 보고, 너희가 실제로 여기에 어떻게 도착하는지를 보며, 사랑하고 있는 너희 영혼들의 사랑하는 방법과 깊은 사랑을 보며 기쁘다. 멀리 떨어진 데서 온 자들에게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물어봐라. 노력해야 했지만 그들은 적어도 여기에 도착한다. 앗차.

한결같이 결합된 형태로 안정되어 머무는 자들에게, 아버지처럼 변함없이 아비약트의 느낌에 안정해서 지내는 자들에게, 한결같이 성공의 화신임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강력하고 대등한 형태를 통해서 비전을 허락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태평하며 승리가 보장된 자들에게, 그런 자녀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밥다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그룹에게 말씀하심.

너희 모두 제 스스로가 세계 전체에서 특별한 영혼임을 경험하느냐? 이것은 세상의 모든 영혼들 중에서 특별한 영혼인 너희들이 아버지를 알아보는 행운을 받았기 때문이다. 높은 가운데 최고로 높은 아버지를 인식하는 것은 참으로 크나큰 행운이다! 너희들은 그를 알아봤고 그와의 관계를 형성했으며 유익을 경험했다. 지금 너희들 스스로 아버지의 보물창고 전부에 대한 주인임을 경험하느냐? 너희가 항상 그의 자녀들이며 그의 자녀라는 것은 항상 권리를 가진다는 뜻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라는 이 의식을 자꾸자꾸 복습해라. 암릿 벨라에 의식의 강력한 형태를 경험하는 자들만이 강력한 상태로 지낸다. 암릿 벨라가 강력하지 않으면 하루 내내 여러 가지 장애가 올 것이다. 그러므로 암릿 벨라를 항상 강력하게 해라. 암릿 벨라에 아버지는 친히 자녀인 너희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려고 온다. 그때에 이 축복을 받는 자들은 하루 종일 쉬운 요기의 단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 공부와 암릿 벨라의 조합이 항상 특별히 강력하게 머물도록 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항상 안전하게 지낼 것이다.

독일 그룹에게 말씀하심.

너희들은 항상 너희가 세계의 시혜자 아버지의 자녀인, 세계 시혜자 영혼이라고 여기느냐? 이는

모든 보물로 가득하다는 뜻이다. 모든 보물들로 가득해야만 비로소 너희가 남들에게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모든 보물들로 가득한 영혼이며 자녀들이고 따라서 주인들이다. 이것을 경험하느냐?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자녀이며 주인이라는 뜻이다. 이 의식은 자동적으로 너희를 세계의 시혜자로 만들고, 이 의식은 너희가 끊임없이 행복해하며 날도록 만든다. 이 브라민 생은 충만한 상태로 지내고, 행복해하며 날아다니고, 항상 아버지의 보물들에 대한 권리를 가진 데 도취감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너희들은 그렇게 고귀한 브라민 영혼들이다. 앗차.

Blessing: 걸거나 움직여 돌아다니는 동안 너희의 모든 행위와 말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는 마스터 선생이 되어라.

오늘날 이동식 도서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 역시 걸고 움직여 돌아다니는 마스터 선생들이다. 너희 앞에서 항상 너희의 학생들을 보라, 너희는 혼자가 아니고 너희 앞에는 늘 너희 학생들이 있다. 너희는 끊임없이 공부하며 또 가르치고 있다. 가치 있는 선생들은 그들의 학생들 앞에서 결코 부주의해지지 않고 주의를 기울인다. 잠자리에 들거나 잠에서 깨어날 때, 걸거나 먹을 때 등 매 순간마다 너희가 커다란 대학에 속해 있으며 학생들이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라.

Slogan: 자아 (영혼)에 대한 믿음으로 너희의 산스카르를 정화하는 것이 고결한 요가다.

*** 옴 산티 O M S H A N T I ***